‘男배우 전성시대’ 맞서 반란 꿈꾸는 여우들

최근 개봉한 영화 ‘우아한 세계’를 보고 있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바로 배우 송강호 때문이다. 배우 한명이 영화에서 관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는 송강호의 연기는 영화 감상의 쾌감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다.

오랫동안 충무로는 남자배우들의 텃밭이었다. 송강호·설경구·최민식 등 이른바 ‘트로이카’에 이어 최근에는 ‘신(新) 트로이카’로 불리는 박해일·류승범·조승우까지 남자배우들은 원톱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역을 맡아왔다.

반면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제작되는 경우가 드물고 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여배우 기근’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기도 한다.

올 봄,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든 한국영화의 구원투수로 여배우들이 등판 채비를 하고 있다.

‘밀양’의 전도연

‘궁녀’의 박진희

‘세븐데이즈’의 김윤진

여배우 없다고? 우리가 있소이다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황진이’는 디자이너 정구호씨가 디자인한 검정색 위주의 독특한 한복 의상들이 눈길을 끌었으며 북한 금강산 촬영도 화제를 모았다.

전도연·송혜교·박진희·김윤진 등 도약
올 봄 침체된 한국 영화 구원 등판 채비
‘우리 생애…’·‘궁녀’ 등 여성감독 메가폰도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배우는 전도연.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여배우로 꼽히는 전도연은 ‘오아시스’ ‘초록물고기’ 등 화제작을 만들어온 이창동 감독의 신작 ‘밀양’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물론 송강호가 상대 배우로 출연하고 있기는 하나 무게 중심이 여주인공에게 쏠려 있는 작품이다. 전도연이 한 인터뷰에서 “송강호에게 ‘살인의 추억’이 있다면, 설경구에게 ‘박하사탕’이 있고, 전도연에게 ‘밀양’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송강호에게 들었다는 말을 전할 정도로 이 영화는‘전도연의 영화’로 알려져 있다.

전도연은 어린 아들과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온 후 모든 사랑을 잃어버린 피아노 선생 ‘신애’ 역을 맡아 열연한다.

상반기 개봉작 중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황진이’다.

북한 작가 홍석중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황진이’의 타이틀롤은 송혜교가 맡았다. 제작초기 ‘접속’ 등을 만든 장윤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황진이’의 주인공으로 송혜교가 기용되자 연기력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스틸 컷 등이 공개되면서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스캔들’에 참여해 새로운 사극 의상을 선보였던 디자이너 정구호씨가 디자인한 검정색 위주의 독특한 한복 의상들이 눈길을 끌었으며 북한 촬영도 화제거리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궁녀’는 아예 여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여자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임순례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이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전성기를 구가했던 한국 여자 핸드볼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문소리·김정은·조은지·김지영 등이 출연한다.

신예 김미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궁녀’는 작품 제목처럼 거의 전 출연진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시대 궁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소재로 한 ‘궁녀’에는 박진희를 비롯, 윤세아·서영희·임정은 등이 캐스팅됐다.

‘로스트’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급성장한 김윤진이 주연을 맡은 ‘세븐데이즈’는 일주일 안에 유괴된 딸을 구해야만 하는 여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스릴러물로 심리학자 역을 맡은 김미숙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싱글즈’의 권칠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뜨거운 것이 좋아’ 역시 이미숙·김민희가 주연을 맡은 여성 영화며 기획시대가 제작중인 ‘맹렬여인전’은 학력이 딸리는 아줌마가 고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연을 그린 작품으로 김수미가 주연을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지원, ‘죽어도 해피엔딩’ 주연

영화 ‘올드 미스 다이어리’에 출연했던 예지원〈사진〉이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예지원’을 연기한다.

예지원은 최근 영화 ‘죽어도 해피엔딩’의 여주인공 ‘예지원’역에 캐스팅됐다.

‘죽어도 해피엔딩’은 하룻밤 사이 네 남자에게 동시 프로포즈를 받게 된 여배우 예지원과 엉뚱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네 남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

프랑스 영화 ‘형사에겐 디저트가 없다’(1998)를 리메이크한 이 영화에서 예지원은 과거의 모습을 감춘채 우아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여배우를 연기한다.

가슴 따뜻한 순수무공해 가족영화

주목! 이 영화

‘날아라 허동구’

정신 연령은 낮지만 누구보다도 천진난만한 초등학생 아들과 그런 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게 그린 가족용 영화다.

학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IQ 60의 동규와 치킨집 사장 아빠 진규의 꿈은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학교에 가면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 친구들에게 물 따라주는 것 밖에 없지만 진규는 그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동구를 특수학교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일자 진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려 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선수 부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야구부의 코치(권오중)는 동구를 기꺼이 환영하는데….

정진영이 아빠 역을 맡았으며 드라마 ‘고맙습니다’에도 출연중인 최우혁이 동구 역으로 열연한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날아라 허동구 IQ 60인 아들 동구와 아빠가 주인공인 가족 영화.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닌자 거북이 TMNT 첫 영화가 나온 지 17년만에 3D 애니메이션으로 부활한 ‘닌자 거북이’.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더블 타겟 마크 월버그 주연의 전형적인 할리우드 액션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숨 김기덕 감독 작품으로 장첸과 하정우가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광주극장
굿 셰퍼드 로버트 드 니로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 18세 관람가.	무등, CGV(상무·첨단), 콜롬버스 하남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 한국말을 배우러 온 일본 여성과 한국인 선생의 좌충우돌 코미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상무)
눈부신 날에 박광수 감독 작품으로 박신양이 주연을 맡은 휴먼 드라마.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제일, 하미, 프리머스 광주(상무)
선샤인 죽어가는 태양 때문에 인류 멸종 위기에 처한 2057년을 배경으로 한 SF물. 15세 관람가.	롯데 첨단,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광주·상무), 하미, 메가박스, CGV 상무
로빈슨 가족 디즈니와 픽사가 합작한 가족용 3D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콜롬버스(하남), CGV(첨단·상무)
리핑 10개의 재앙 초자연 현상을 다룬 오컬트 미스터리. 15세 관람가.	롯데 첨단, 메가박스, 무등, CGV(첨단) 씨너스 전대, 콜롬버스(상무)
고스트 라이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액션물.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 광주(상무)
극락도 살인사건 외딴 섬의 마을 주민의 연쇄 죽음을 소재로 한 박해일 주연의 미스터리 스릴러물.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상무)
우아한 세계 송강호 주연의 생활 느와르. ‘연애의 목적’을 만든 한재림 감독 작품이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하미